

간호학과 학생들의 협동적 정보행태에 대한 만족도와 정서적 경험에 관한 연구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User Satisfaction and Affective Experiences of Collaborative Information Behavior

이 지 수 (Jisu Lee)*

나 경 식 (Kyoungsik Na)**

목 차

- | | |
|------------------|------------|
| 1. 서론 | 4. 결과 분석 |
| 2. 선행 연구 | 5. 결론 및 제언 |
| 3. 연구의 설계와 분석 방법 | |

초 록

본 연구는 간호학과 학생들의 그룹과제 시 협동적 정보행태에서 나타나는 만족도 및 정서적 경험 등을 설문조사하여 이들의 관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이용자들의 협동적 정보검색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평가는 동일 설문지에서 PANAS 척도를 이용하여 정서적 경험을 측정하였다. 학생들의 협동적 정보검색에 대한 경험은 정서적 측면과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일반적 특성, 협동적 정보검색에 대한 경험, 정서적 측면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학과 학생들의 협동적 정보검색과 정서적 경험은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또한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협동적 정보검색과 정서적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들의 성별과 '전반적 협동에 대한 만족도', 학생들의 성별과 긍정적 정서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협동적 정보행태에서 정서적 경험에 대한 후속 연구에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user satisfaction and affective experience of collaborative information behavior in a group-based learning through survey method to se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factors. For this purpose, the affective experiences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collaborative information search were examined using the PANAS scale through the same questionnaire. Correlation between students' experiences of collaborative information search and affective aspects were examined,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using the t-test were also conducted to measure the relationship among students' demographic factors, experiences of collaborative information search and affective aspects.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experiences of collaborative information search and affective aspects. Also,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s among students' demographic factors, experiences of collaborative information search and affective aspects. In particula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tudents' overall satisfaction of collaboration and positive aspects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who experienced collaborative information search. This study found out the possibilities for a follow-up study for affective aspects in collaborative information behavior.

키워드: 협동적 정보행태, 이용자 만족도, 간호학, 정서적 경험 척도(PANAS), 그룹기반 학습

Collaborative Information Behavior, User Satisfaction, Nursing,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Group-Based Learning

* University of North Texas 박사, 숙명여자대학교 리더십개발센터 책임연구원(jisulee0423@gmail.com) (제1저자)

** 건국대학교 공공인재대학 문헌정보학과 조교수(kn05d@kk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14년 7월 15일 최초심사일자: 2014년 8월 9일 게재확정일자: 2014년 8월 21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3): 193-215, 2014. [http://dx.doi.org/10.4275/KSLIS.2014.48.3.19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의 정보화 사회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의 조직 안에서 조직원들과 상호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며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여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시 되고 있다. 조직 안에서의 협동(협력) 작업은 업무 또는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며, 서로 협동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주어진 일을 보다 효과적 또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협동은 복잡하고 다양한 정보사회의 조직 내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환경에서 종합적이고 여러 분야에 걸친 그룹 또는 팀의 협업은 현대 사회에서 일상적인 구조가 되었다. 따라서 여러 학자들은 다양한 연구에서 협업을 효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그룹의 구성원들과 효율적으로 협동을 하기 위해서 그룹 내에서의 협동적 정보행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협업을 통해서 정보를 찾고 이용하는 협동적 정보행태에 대한 연구는 디자인(Bruce et al. 2002), 교육(Hyldegard 2006; 2009; Kim and Lee 2012; Kim and Lee 2014), 군사(Sonnenwald and Pierce 2000) 및 의학(Reddy and Dourish 2002; Reddy et al. 2002; Reddy and Jansen 2008) 등 여러 다양한 전문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협동을 하는 조직 내의 구성원들 대상으로 구성원들의 협동적 정보행태에 대한 만족도, 인지적 요소,

협동적 정보검색 과정, 협동적 정보 시스템의 활용 등의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되어 왔다.

반면에 전문의 및 치료팀 등과 같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분야 간의 협동(협력) 업무가 증시되는 간호학 분야의 협동적 정보행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간호학 분야의 정보 이용자들이 조직 내의 협동적 정보행태 과정에서 인지하고 있는 협동의 정도, 방해요소, 만족도, 감정적 경험 등에 대한 연구나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간호학에서는 학문의 특성상 병원이나 의료시설 등의 조직 내에서 협동하여 업무 또는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많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간호학의 교과과정에서는 깊은 사고와 다양하고 전문적인 정보의 공유를 위한 협동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Davies(2000)는 간호학 및 의학 분야에서 협업의 목적은 전문성, 그룹구성원들의 개인적 또는 전문적 경험, 기여 등을 받아들이고 공통된 목표를 공유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Lindeke and Siekert(2005)는 간호학 또는 의학에서 서로 다른 여러 분야의 협업은 서로 다른 기술과 지식 기반을 갖고 있는 개인들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간호학의 교과과정에서는 실제 의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전문 분야의 협업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그룹기반 실습 또는 컨퍼런스 등의 다양한 협동 학습이 수행되고 있다.

협업에서 그룹 내 조직원들의 협업 수준, 만족도 등은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지식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이러한 요소는 성공

적인 협업을 위해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다(Adamic and Glance 2005; Stvilia et al. 2008). 또한 그룹 내 조직원들의 의사소통 또는 협업은 협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들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갭이 커질 때 그룹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Reagans, Zuckerman and McEvily 2004).

이처럼 학문의 특성상 협업이 중시되며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간호학에서는 정보 및 지식을 공유, 이용하기 위한 협동적 정보행태 역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협동 실습 또는 그룹과제에서 나타나는 협동적 정보이용행태, 협동적 정보검색 경험, 협동적 정보검색의 만족도 및 인식, 협동적 정보행태의 정서적 경험 등을 조사하여 이들의 관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학생들의 협동 실습 및 그룹과제에서 나타나는 협동적 정보행태에 대한 만족도 및 정서적 경험에 대해 분석하여 향후 간호학 분야에서의 협동적 정보이용의 서비스 설계 및 도구를 개발 또는 보완하기 위한 자료와, 더 나아가 타 분야의 협동적 정보행태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학과 학생들의 그룹과제 시 협동적 정보검색의 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협동과정에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 만족도, 주로 협동하는 정보검색의 단계, 주로 협동하는 협력자 등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둘째, 간호학과 학생들의 협동적 정보검색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및 인식을 분석하고, 각 요소가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셋째, 간호학과 학생들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의 경험을 분석해 보고, 여러 협동 요소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2. 선행 연구

2.1 협동 및 협동적 정보행태의 선행 연구

문헌정보학 분야의 정보행태에 관한 연구는 전통적으로 개인의 정보이용행태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왔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정보와 협동이 결합된 현상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Bruce et al. 2002; Golovchinsky, Morris and Pickens 2010; Hyldegård 2006; 2009; Kim and Lee 2012; Kim and Lee 2014; Reddy and Spence 2008; Reddy and Dourish 2002; Reddy and Jansen 2008; Shah 2010; Sonnenwald and Pierce 2000). Karunakaran and Reddy(2012)는 협동은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고 완수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보를 찾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며,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인지는 협동과 정보행태에 대한 다양한 연구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았다. 협동적 정보행태에 대해 Poltrock et al.(2003)은 그룹 또는 팀의 구성원들이 주어진 공통된 정보요구를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조직 내에서 복잡한 정보문제 또는 요

구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나는 협동적 정보행태는 협동 작업이 본성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의학 관련 분야에서도 여러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Reddy and Dourish(2002)는 중환자실 의료팀의 협동적 정보행태와 역할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의료팀의 협동 작업에서 구성원들이 서로의 역할과 일의 방향을 인지하였을 때, 역시 언제 정보가 필요한지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성원들은 그들이 원하는 또는 적합한 정보를 찾기 위해 협동적 정보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협동검색 과정에서 찾은 정보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의료팀의 협동적 정보행태에 관한 연구에서 Gorman et al.(2000)은 의료팀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필요한 정보를 함께 찾고 공유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의료팀 구성원들은 정보요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자원 및 정보원을 활용하여 정보를 찾으려고 시도하였으며, 연구자들은 이러한 다양한 정보자원의 활용이 협동적 정보행태의 장점이자 중요한 점이라고 언급하였다. 두 개의 의료진료 팀의 협동적 정보행태에 대한 연구에서 Reddy and Jansen(2008)은 의료진료 팀 내의 그룹 정보요구를 7개 범주로 분류하였고, 그 중 '조직과 관련된 정보'와 '의학 관련 정보'가 조직 내에서 그룹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정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저자들은 분산된 정보, 즉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부족, 정보요구의 복잡함 등이 협동적 정보행태를 야기하는 여러 요소라고 언급하였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개인의 정보행태에서 함께 정보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협동적 정보행태로 변화하는 계기가 된다고 보았다.

2.2 협동적 정보행태에서의 정서적 요인에 대한 연구

협동적 정보행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면서, 개인의 정보행태와는 다른 새로운 연구문제와 가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협동적 정보행태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룹원들의 정서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다. González-Ibáñez(2012)는 느낌, 감정, 기분, 정서 등의 요소가 개인의 정보행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왔지만, 협동적 정보행태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아직 많이 수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협동적 정보행태 과정에서 정서적 요소는 개인의 정보추구행태에서와는 다르게 나타나며 두 가지의 과정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첫 번째 과정은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같은 협동과정 그 자체에서 나타나는 정서적인 것으로서, 그룹이 해결하는 정보요구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이며, 두 번째 과정은 정보와 관련된 것으로서, 정보추구, 정보의 적합성 판단, 정보이용, 의미탐색 등 여러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과정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정서적 측면이 협동적 정보검색 과정에서 그룹원들 간의 의사결정 및 정보검색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어 왔다(Fredrickson and Losada 2005; González-Ibáñez 2012; Waugh and Fredrickson 2006).

비록 몇몇 연구자들이 협동적 정보행태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변화 또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개인의 정보검색 과정에 초점을 둔 Kuhlthau의 정보탐색(ISP)모형을 기반으로 연구되었다(이지수 2013; Hyldegard

2006; Shah and González-Ibáñez 2010; González-Ibáñez, Shah and Códova-Rubio 2011). 예를 들면, Hyldegard(2006)와 Shah and González-Ibáñez(2010)의 연구에서는 Kulhtau의 ISP 모형을 기반으로 정보탐색의 단계에 따라 그룹 구성원들의 정서적 측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연구하였다. 또한 González-Ibáñez, Shah and Códova-Rubio(2011)의 연구에서도 역시 Kulhtau의 ISP모형을 기반으로 실험 검색과제에서 팀별 구성원이 나타내는 만족감의 정도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 연구 결과 그룹을 기반으로 한 정보검색 과제의 참가자들이 개인을 기반으로 한 정보검색 과제의 참가자들 보다 정서적 측면을 더 많이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그룹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보았고, 이러한 정서적 표현이 정보와 관련하여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보았다.

이처럼 협동적 정보행태에서 정서적 측면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여러 연구가 수행되어 왔지만, 구성원들의 정서적 측면과 협동의 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적 및 부적 정서 척도(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를 바탕으로 협동과정에서 나타나는 간호학과 학생들의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 경험을 조사하고, 이러한 경험과 다른 요소(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협동적 정보행태에 대한 경험, 협동적 정보행태에 대한 만족도 및 인식 등)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Watson, Clark and Tellegen에 의해 1988년 개발된 PANAS는 사회심리, 성격심리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정서적 측면을 분석할 수 있는 척도

로서 개인의 정서 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보고 측정도구이다(Watson, Clark and Tellegen 1988). Ashby et al.(1999)의 연구에서는 긍정적 정서는 문제해결, 창작 등과 같은 고차원의 과제와 양성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언급하였고, PANAS 척도를 이용하여 이러한 상관관계를 볼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ANAS 척도를 한글로 번역하여,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2003)의 분석에 따라 긍정적 정서를 반영하는 9개 항목사, 부정적 정서를 반영하는 11개 항목사를 사용하여 협동적 정보행태 과정에서 나타나는 간호학과 학생들의 정서 및 심리의 경험을 자기보고 형식을 통해 살펴보고, 그룹과제 시 나타나는 협동의 여러 요소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3. 연구의 설계와 분석 방법

3.1 연구 설계 및 표본

본 연구는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에서 행해지는 그룹을 기반으로 한 실습 또는 과제에서 발생하는 협동적 정보행태의 경험에 대해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전라도 소재 4년제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간호학과의 학부과정 학생들로서, 모두 그룹과제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었다. 연구의 참여자에 대한 윤리성을 고려하여, 모든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등 설문조사 결과가 연구의 근거자료로서 사용될 것을 미리 설명하고, 모든 참여자로부터 '연구 참

여 동의서'의 서명을 받은 후 참여 의사에 따라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을 위해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하였다. 설문지는 2014년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연구자가 직접 배포하고 회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500부를 배포하여 모두 회수하였으며, 이 중 협동으로 정보검색 또는 그룹과제를 해보지 않았다고 응답한 설문지를 최종분석에서 제외시키고, 총 469부를 최종분석에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 문항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일반적 특성과 그룹과제에서 협동적 정보행태의 경험에 관한 문항, 그리고 협동적 정보행태의 경험에 대한 만족도 및 인식에 관한 문항, 협동적 정보행태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경험에 대한 항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표 1〉 참조).

그룹과제 시 협동적 정보행태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경험에 대한 조사는 PANAS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각 정서적 측면에 대한 요소는 〈표 2〉와 같다.

〈표 1〉 설문조사 항목

대 항목	소 항목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교육정도
그룹과제 시 협동적 정보검색의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동 의사소통 도구 •협동의 만족, 불만족 이유 •협동적 정보검색의 주된 이유 •주로 상의하고 협동하는 사람 •협동의 만족도 •협동적 정보검색을 하는 단계 •협동적 정보검색의 어려움
그룹과제 시 협동적 정보검색의 경험에 대한 만족도 및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반적인 협동의 수준 •협동적 정보검색의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 •협동적 정보검색의 수준 •협동적 정보검색에서 찾은 정보,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 •협동적 정보검색의 어려움 •협동적 정보검색에서 원하는/필요한 정보를 찾는 정확성 •협동적 정보검색에서 원하는/필요한 정보를 찾는 신속성
그룹과제 시 협동적 정보검색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표 2〉 PANAS 척도: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의 요소

구분	항목	구분	항목
긍정적 정서	1. 흥미로운	부정적 정서	1. 괴로움
	2. 신남, 흥분된		2. 화나는
	3. 열렬, 왕성한		3. 후회스러운
	4. 단호한		4. 겁나는
	5. 열성적인		5. 짜증나는
	6. 자랑스러운		6. 기민한
	7. 주의 깊은		7. 부끄러운
	8. 확고한, 강한		8. 긴장되는
	9. 활동적인		9. 초조한
			10. 두려운
			11. 적대적인

3.2 연구 분석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적 분석을 위해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의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간호학과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분석은 빈도분석을 이용하였다.

(2) 그룹과제 시 협동적 정보검색의 경험에 대한 설문 문항은 객관식 또는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만족도에 대한 항목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분석은 빈도분석, 평균 및 표준편차 분석을 이용하였다.

(3) 간호학과 학생들의 협동적 정보검색에 대한 만족도 및 인식에 대한 항목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해서는 빈도분석, 평균 및 표준편차 분석, 피어슨 상관계수 r (Pearson's r)을 이용하였다.

(4) 간호학과 학생들의 협동적 정보검색에 대

한 정서적 경험은 10점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한 분석은 빈도분석, 평균 및 표준편차 분석, 피어슨 상관계수 r (Pearson's r)을 이용하였으며, 정서적 경험의 각 요소들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크롬바하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를 분석하였다.

4. 결과 분석

4.1 표본의 일반적 특성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먼저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세가 25.6%(120명), 21세가 22.8%(107명), 23세가 20.0%(94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연령의 분포를 보면 19세부터 30세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성별은 남자가 11.7%(55명), 여자가 88.3%(414명)로 나타나 간호학과의 특성상 여성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다. 응답자의 교육정도는 4학년이 26.9%(126명)로 가장 많았으며,

<표 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세부내용	빈도	비율(%)
성별	남자	55	11.7
	여자	414	88.3
연령	19~21	236	50.3
	22~24	198	42.2
	25~27	37	4.6
	28~30	8	1.6
	31 이상	5	1.0
교육정도	1학년	112	23.9
	2학년	113	24.1
	3학년	118	25.2
	4학년	126	26.9

3학년이 25.2%(118명), 2학년이 24.1%(113명), 1학년이 23.9%(112명)의 순으로 학년별로 크게 나타났다.

4.2 협동적 정보검색의 이용행태 및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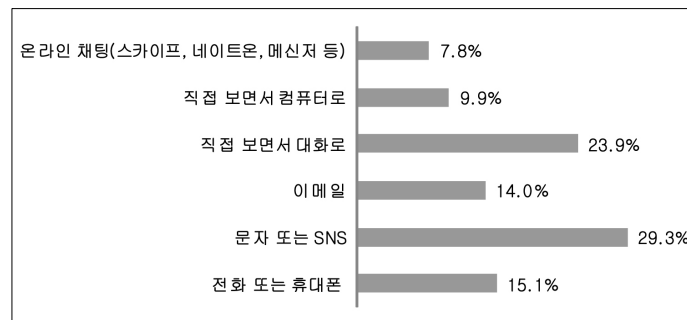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른 학생들과 함께 그룹과제 시 협동적 정보검색에 대한 여러 경험에 대하여 분석하였다(〈그림 1〉 참조).

첫째, 그룹과제 시 타인과 다른 공간, 또는 기기로 협동적 정보검색을 할 때 어떻게 협동 또는 의사소통을 하였는가에 대한 복수응답이 가능한 질문에 대하여, 총 1217개의 응답 중 '문자 또는 SNS(문자, 카카오톡 등)'이 29.3%(356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접 보면서 대화

로'가 23.9%(291개), '전화 또는 휴대폰으로'가 15.1%(184개), '이메일'이 14.0%(170개)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개인의 스마트폰 또는 휴대폰이 그룹과제에서의 협동의 주된 의사소통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최근 수행한 그룹과제 시 협동적 정보검색에서 나타난 협동과정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는 평균 3.03(SD=0.86)으로 협동과정에 대해 '보통'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또한 그룹과제 시 협동적 정보검색에서 나타난 협동과정의 경험에 대해 '만족'하는 이유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그룹의 구성원들이 서로 '협동을 할 수 있고, 협동심을 기를 수 있어서 (34.9%)'라고 응답하였고, '자료를 다양한 시선



〈그림 1〉 협동적 정보검색을 위한 의사소통 도구(복수응답: N = 1217)

〈표 4〉 협동에 대한 만족도

	빈도	비율 (%)	평균(표준편차)
매우 불만족	17	3.6	3.03(0.86)
불만족	101	21.5	
보통	216	46.1	
만족	122	26.0	
매우 만족	13	2.8	
합계	469	100.0	

으로 해석, 완성도 높은 결과 획득 가능(17.4%)', '서로 모르는 정보를 공유 가능(11.8%)'이 뒤를 이었다(〈표 5〉 참조). 그리고 그룹과제 시 협동적 정보검색에서 나타난 협동과정의 경험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구성원의 참여도가 낮아 역할 분담에 불만족, 서로 역할 떠넘김(58.4%)'이라고 나타냈고, '팀원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 안되고 불편함(17.4%)', '혼자 하는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림(8.7%)'이

뒤를 이었다(〈표 6〉 참조).

셋째, 간호학과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정보검색을 할 때 주로 어떠한 정보검색 단계에서 협동을 하는지에 대한 복수응답이 가능한 문항에 대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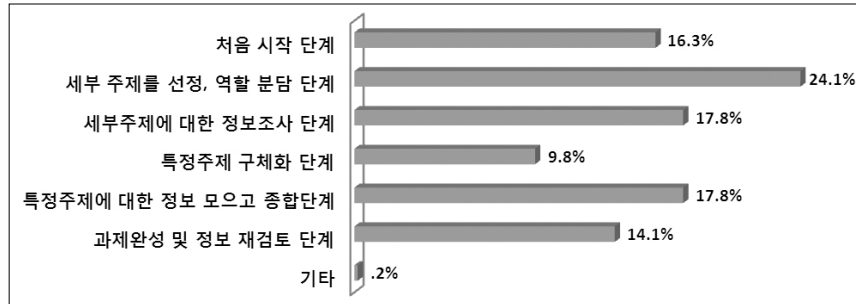
조사결과 총 1,136개의 응답 중 '과제 또는 정보검색에서 세부 주제를 선정하고 역할을 분담하기 위한 단계'가 2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과제 또는 정보검색의 세부 주제에 대한 정

〈표 5〉 협동적 정보검색 또는 그룹과제에 대해 만족하는 이유

협동적 정보검색 또는 그룹과제에 대해 만족하는 이유		
항목	빈도	비율(%)
협력해보는 것이 좋은 경험, 협동심	112	34.9
재미있어서	7	2.2
내가 못하는 부분을 타인이 도와줌	19	5.9
서로 모르는 정보를 공유	38	11.8
자료를 다양한 시선으로 해석, 완성도 높은 결과 획득	56	17.4
업무 분담	30	9.3
친밀감, 유대관계	18	5.6
편하기 때문에	2	0.6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음	14	4.4
시간낭비를 하지 않음	25	7.8
합계	321	100.0

〈표 6〉 협동적 정보검색 또는 그룹과제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

협동적 정보검색 또는 그룹과제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		
항목	빈도	비율(%)
구성원의 참여도가 낮아 역할 분담에 불만족	94	58.4
의사소통이 잘 안됨	28	17.4
시간이 오래 걸림	14	8.7
효율적이지 못함	5	3.1
혼자 하는 것이 결과가 좋게 나옴	6	3.7
자료 찾기가 어려웠음	2	1.2
모바일 메신저 등의 기기로 의견을 모으기 어려움	6	3.7
만나기 힘들	5	3.1
공부와 팀워크보다는 과제제출에 급급함	1	0.6
합계	161	100.0



〈그림 2〉 주로 협동하는 정보검색의 단계(복수응답: N = 1136)

보를 조사하는 단계'와 '과제 또는 정보검색의 특정한 주제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종합하는 단계'가 각각 17.8%로 뒤를 이었다. 또한 '과제 또는 정보검색에서 특정 주제를 구체화 하는 단계'에 대하여 가장 적게 응답하여, 이러한 결과는 특정 주제를 정하여 구체화 하는 단계에서는 그룹원들과의 협동보다는 개인 위주로 정보검색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간호학과 학생들이 정보검색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과 서로 협동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한 문항에는 가장 많은 응답자인 38.6%(181명)가 '서로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서'라고 나타냈고, '쉽고 빠르게 정보를 찾기 위해서'가 26.2%(123명), '찾은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 또는 비교하기 위해서'가 16.0%(75

명), '찾기 어려운 정보를 함께 찾기 위해서'가 15.1%(71명)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전체응답자의 1.7%(8명)만이 '찾은 정보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정보검색에서 다른 사람과 협동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간호학과 학생들은 주로 역할을 분담하여 쉽고 빠르게 정보를 찾기 위해 주로 협동하여 정보를 검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는 찾은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찾지 못한 어려운 정보를 함께 찾기 위해 협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넷째, 간호학과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서로 협동하여 정보검색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 1순위와 2순위의 응답을 합한 전체 922개의 응답 중 '그룹원들 간의 스케줄 맞추기'가 25.7%

〈표 7〉 협동적 정보검색을 하는 이유

	빈도	비율(%)
서로 역할 분담하기 위해	181	39.2
찾기 어려운 정보를 함께 찾기 위해	71	15.4
쉽고 빠르게 정보를 찾기 위해	123	26.6
찾은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 또는 비교하기 위해	75	16.2
찾은 정보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 위해	8	1.7
기타	4	.9
합계	462	100.0

로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응답하였고, 2순위는 '그룹원들 간의 의사소통'으로 전체 응답자의 16.8%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과 학생들은 협동적 정보검색에서 서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스케줄과 시간을 맞추어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며, 또한 이러한 결과는 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그룹원들 간에 일(역할)을 서로 분담하는 것'과 '각 개인의 성향 또는 성격 차이 맞추기'를 어려운 점으로 나타내어, 학생들이 협동적 정보검색에서 불만족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다(〈표 8〉 참조).

다섯째, 간호학과 학생들이 지난 그룹과제에

서 정보를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로 누구와 상의하고 협동하였는가에 대한 문항에 대하여 '같은 그룹 내의 가까이 있는 그룹원'이 52.2% (24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소에 상관없이 그룹 내의 그룹원'이 26.2%(123명)로 뒤를 이었다. 따라서 그룹과제에서 학생들은 팀의 리더, 교수님, 또는 나의 주변사람이 아닌 장소와 친밀도에 상관없이 그룹 내의 그룹원과 주로 협동을 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 의견으로는 '그룹 내의 과제에 대한 이해가 높은 그룹원' 또는 '그룹 내의 각각의 주제에 대한 역할을 맡은 그룹원'과 협동을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표 9〉 참조).

〈표 8〉 협동하여 정보검색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

항목	1순위		2순위		전체 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순위
그룹원들 간의 스케줄 맞추기	119	25.5	118	25.9	237	25.7	1
그룹원들 간의 의사소통	95	20.3	60	13.2	155	16.8	2
그룹원들 간에 일을 서로 분담하는 것	78	16.7	74	16.3	152	16.5	3
각 개인의 성향 또는 성격 맞추기	46	9.9	75	16.5	121	13.1	4
다른 그룹원과 일의 속도 및 과정을 맞추는 것	51	10.9	44	9.7	95	10.3	5
다른 그룹원이 어느 부분까지 이해하는지 인지하는 것	54	11.6	36	7.9	90	9.8	6
그룹원들 간의 신체적 거리	8	1.7	20	4.4	28	3.0	7
그룹원들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 사용	7	1.5	16	3.5	23	2.5	8
전체 그룹원의 공동 목표를 정하는 것	6	1.3	11	2.4	17	1.8	9
기타	3	0.6	1	0.2	4	0.4	10
합계	467	100.0	455	100.0	922	100.0	

〈표 9〉 협동하여 정보를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로 상의하는 사람

항목	빈도	퍼센트
같은 그룹 내의 가까이 있는 그룹원	245	52.2
가까이 있는 그룹원 이외의 나의 주변사람	34	7.2
장소에 상관없이 그룹 내의 그룹원	123	26.2
장소에 상관없이 그룹 이외의 나의 주변사람	22	4.7
교수님, 교육자	5	1.1
팀의 리더	32	6.8
기타	8	1.7
합계	469	100.0

4.3 협동적 정보검색에 대한 만족도 및 인식

4.3.1 협동적 정보검색에 대한 만족도 및 인식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학생들이 그룹과제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협동하여 정보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상황 및 요소에 대해 만족도 및 인식에 대한 평균을 분석해 본 결과는 <표 10>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간호학과 학생들의 지난 그룹과제 시 정보검색에서 그룹원들과 협동이 어느 수준으로 잘되고 못되었는지의 정도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평균 약 3.2(SD = 0.76)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그룹과제에서 협동의 수준을 '보통' 정도로 잘 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난 그룹과제의 수행 후에 그룹원과 협동하여 만든 마지막 결과물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는, 평균 약 3.4(SD = 0.73)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협력하여 완수한 결과물에 대하여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난 그룹과제에서 그룹원들과의 전체적인 협동적 정보검색의 행한 수준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항에 대해, 대부

분의 응답자들이 평균 약 3.3(SD = 0.75)로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협동적 정보검색을 했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난 그룹과제에서 그룹원과 협력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 한 후 찾은 결과정보에 대해서 어느 정보 만족하는가에 대한 항목에는, 평균 약 3.4(SD = 0.74)로 '보통' 이상으로 협동하여 찾은 정보검색 결과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지난 그룹과제에서 그룹원들과 협동하여 필요한(또는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항목에는, 평균 약 3.3(SD = 0.76)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보통' 이상으로 협동하여 필요한 또는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것이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지난 그룹과제에서 다른 그룹원들과 협동하여 필요한(또는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것이 찾은 정보의 정확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항목에,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평균 약 3.4(SD = 0.71)로 협동하여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 '보통' 이상의 정보의 정확성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난 그룹과제에서 다른 그룹원들과 협동하여 필요한 또는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것이 과제의 신속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하는가에

<표 10> 협동의 여러 요소에 대한 만족도 및 인식

항목	평균	표준편차
협동의 수준(잘되고 못된 정도)	3.19	.76
협동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	3.41	.73
협동에서 전체적 검색수준	3.32	.75
협동에서 찾은 정보의 만족도	3.38	.74
협동하여 원하는 정보를 찾는 어려움	3.34	.76
협동에서 찾은 정보의 정확성	3.44	.71
협동검색의 신속성	3.40	.86

대한 항목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평균 약 3.4(SD = 0.86)로 협동하여 정보를 찾는 것이 '보통' 이상으로 과제의 신속성에 기여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부분의 간호학과 학생들은 그룹과제 시행한 협동적 정보행태에 대한 경험 및 정보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4.3.2 협동적 정보검색에 대한 만족도 및 인식과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측정된 협동적 정보검색에 대한 만족도 및 인식과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일반적 특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과 협동적 정보검색에 대한 만족도 및 인식에 대한 차이를 t-검정을 실시하여 살펴본 결과 여러 협동적 정보검색에 대한 만족도 및 인식에 관한 요소 중 응답자의 성별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요소는 '협동에 대한 만족도'로서 남자가 여자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t = 4.183, p = 0.001$). 비록 전체 표본의 차이에서 여성이 남성의 수의 약 8배가 높았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남자와 여성이 협동에 대해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일반적 특성(연령, 학년)과 협동에 관한 요소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그룹과제 시 협동적 정보검색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다른 여러 협동에 관련된 만족도 및 인식에 대한 요소 사이에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교차 분석을 하였다. 협동과 관

련된 만족도 및 인식에 대한 요소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의 요소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요소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협동하여 원하는 정보 찾는 어려움'에 대한 만족도는 모든 요소와의 상관관계에서 부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협동하여 그룹과제 시 정보검색을 할 때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학생일수록, 협동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협동의 수준, 협동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 전체적 검색수준, 찾은 정보에 대한 만족도, 협동적 정보검색의 신속성 등에 대해 낮게 만족하거나 또는 인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협동하여 원하는 정보 찾는 어려움'과 '협동에서 찾은 정보의 정확성'의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성별에 의한 협동에 대한 만족도 차이

성별	빈도	평균	표준편차
남자	55	3.49	.88
여자	414	2.97	.83
$t = 4.183 \quad df = 67.568 \quad p = 0.001$			

4.4 협동적 정보검색에서 정서적 경험

본 연구에서 간호학과 학생들의 지난 그룹과제에서 협동적 정보검색에 대한 정서적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나타내는 각각의 형용사를 제시하고 어느 정도의 수준을 경험하였는지를 측정하였다.

4.4.1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PANAS 척도의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크롬바하 알파

(Crobach's Alpha)를 이용하여 각 척도들이 내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긍정적 정서 9개 문항에 대한 크롬바하 알파의 계수는 0.852, 부정적 정서 11개의 문항에 대한 크롬바하 알파의 계수는 0.824로 알파 값이 모두 0.5 이상으로 산출되어, 본 연구에서 분석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에 대한 값은 내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각 요소들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및 크롬바하 알파의 값의 결과는 <표 12>, <표 13>과 같다.

PANAS 척도의 긍정적 정서에 대한 전체 항목의 평균은 10점 만점에 5.0(SD = 1.1)으로 나타났고, 각 요소 중 상위 순위에 속하는 형용사는 '활동적인(M = 5.6, SD = 1.5)', '주의 깊은(M = 5.4, SD = 1.7)', '열성적인(M = 5.3,

<표 12> 긍정적 정서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및 신뢰도(N=461)

	항목	평균	표준편차
긍정적 정서	1. 흥미로운	4.74	1.86
	2. 신남, 흥분된	3.94	1.82
	3. 열렬, 왕성한	4.95	1.52
	4. 단호한	3.31	2.04
	5. 열성적인	5.26	1.61
	6. 자랑스러운	5.11	1.70
	7. 주의 깊은	4.97	1.52
	8. 확고한, 강한	5.12	1.40
	9. 활동적인	5.62	1.50
	전체 평균 및 표준편차	5.01	1.10
	Cronbach의 알파	0.852	

<표 13> 부정적 정서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및 신뢰도(N=461)

	항목	평균	표준편차
부정적 정서	1. 괴로운	5.15	1.98
	2. 화나는	4.61	2.27
	3. 후회스러운	4.28	1.96
	4. 겁나는	3.67	2.00
	5. 짜증나는	5.09	2.16
	6. 기민한	4.09	3.41
	7. 부끄러운	3.44	1.80
	8. 긴장되는	5.18	1.86
	9. 초조한	4.56	1.95
	10. 두려운	4.13	2.04
	11. 적대적인	3.34	2.06
	전체 평균 및 표준편차	4.32	1.31
	Cronbach의 알파	0.824	

SD = 1.6)’, ‘확고한, 강한(M = 5.1, SD = 1.4)’ 등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순위에 속하는 요소들은 ‘신남, 흥분된(M = 3.9, SD = 1.8)’, ‘단호한(M = 3.3, SD = 2.0)’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 정서에 대한 전체 항목의 평균은 10점 만점에 4.3(SD = 1.3)인 ‘보통’ 미만으로 나타나 긍정적 정서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각 요소 중 상위 순위에 속하는 형용사는 ‘긴장되는(M = 5.2, SD = 1.9)’, ‘짜증나는(M = 5.1, SD = 2.2)’ 등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순위에 속하는 요소들은 ‘겁나는(M = 3.7, SD = 2.0)’, ‘부끄러운(M = 3.4, SD = 1.8)’, ‘적대적인(M = 3.3, SD = 2.1)’ 등으로 나타났다.

4.4.2 정서적 경험과 일반적 특성, 협동 요소와의 관계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응답자의 성별과 정서적 경험에 대한 차이를 t검정을 실시하여 살펴본 결과 여러 정서적 경험에 대한 요소 중 응답

자의 성별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요소는 긍정적 정서의 ‘흥미로운’(t = 3.790, p = 0.001), ‘신나는’(t = 3.533, p = 0.001)에 대해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참조). 남자가 여성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남자와 여자가 협동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적 경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결과는 남자가 여자보다 협동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과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다른 일반적 특성(연령, 교육 정도)과 정서적 경험에 대한 요소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찾아볼 수 없었다.

여러 협동과 관련된 요소들과 PANAS 척도의 긍정적 정서 및 부정적 정서간의 서로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표 15〉 참조).

첫째, 긍정적 정서와 여러 협동에 관련된 요소와의 상관관계를 Pearson 상관계수(r)로 살펴보면, 긍정적 정서와 ‘협동의 수준’(r = .468,

〈표 14〉 성별에 의한 정서적(긍정적) 경험에 대한 차이

성별	흥미로운			신나는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남자	55	5.68	2.00	55	4.86	2.08
여자	414	4.61	1.81	414	3.83	1.76
t = 3.790 df = 66,264 p = 0.001			t = 3.533 df = 64,742 p = 0.001			

〈표 15〉 정서적 경험과 협동 요소와의 상관관계 계수(N = 422)

	협동의 수준 (잘되고 못된 정도)	협동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	협동적 정보검색의 전체적 검색수준	협동적 정보검색에서 찾은 정보의 만족도	협동적 정보검색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는 어려움	협동적 정보검색에서 찾은 정보의 정확성	협동적 정보검색의 신속성	전반적 협동에 대한 만족도
긍정적 정서	.468**	.561**	.446**	.456**	-.155**	.357**	.353**	.497**
부정적 정서	-.390**	-.404**	-.310**	-.387**	.330**	-.226**	-.251**	-.371**

**p < .01

$p < .01$), '협동의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r = .561, p < .01$)', '협동적 정보검색의 전체적 검색수준($r = .446, p < .01$)', '협동적 정보검색에서 찾은 정보의 만족도($r = .456, p < .01$)', '협동하여 원하는 정보를 찾는 어려움($r = -.155, p < .01$)', '협동적 정보검색에서 찾은 정보의 정확성($r = .357, p < .01$)', '협동적 정보검색의 신속성($r = .353, p < .01$)', '전반적인 협동에 대한 만족도($r = .497, p < .01$)' 등으로 나타나 모든 항목에서 유의수준 1%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협동의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 '전반적 협동에 대한 만족도', '협동의 수준' 및 '협동적 정보검색에서 찾은 정보의 만족도'는 상관계수가 0.45 이상으로 나타나 긍정적 정서를 갖는 학생들이 여러 협동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긍정적 정서와 '협동적 정보검색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는 어려움' 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155로 약한 부적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이는 긍정적 정서를 갖는 학생일수록 협동하여 원하는 정보를 찾는데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부정적 정서와 협동과 관련된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정적 정서와 '협동의 수준(잘되고 못된 정도)($r = -.390, p < .01$)', '협동의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r = -.404, p < .01$)', '협동적 정보검색의 전체적 검색수준($r = -.310, p < .01$)', '협동적 정보검색에서 찾은 정보의 만족도($r = -.387, p < .01$)', '협동하여 원하는 정보를 찾는 어려움($r = .330, p < .01$)', '협동적 정보검색에서 찾은 정보의 정확성($r = -.226, p < .01$)', '협동적 정보검색의 신속성($r = -.251, p < .01$)', '전반적인 협동에 대한 만족도($r = -.371,$

$p < .01$)' 등으로 나타나 모든 항목에서 유의수준 1%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정서와 각 항목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협동적 정보검색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는 어려움'을 제외한 모든 요소에서 부적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부정적 정서를 갖는 학생일수록 각 협동에 관련된 항목에 대하여 낮게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부정적 정서를 갖는 학생일수록 '협동의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 = -.404, p < .01$).

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복잡하고 전문화된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협동적 정보검색 및 이용은 조직 내의 그룹 또는 팀의 협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야의 특성상 협력이 매우 중요시 되고 일상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간호학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룹과제 시에서 나타나는 (1) 협동적 정보검색의 경험에 대한 분석, (2) 협동적 정보검색에 대한 만족도 및 인식, (3) 협동적 정보검색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경험과 이러한 여러 협동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학생들의 협동적 정보행태와 만족도 및 인식은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으며,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평가는 동일 설문지에서 PANAS 척도를 이용하여 정서적 경험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학과 학생들은 그룹과제 시 다른

사람과 협동적 정보검색을 수행할 때 협동 또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개인 스마트폰이나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 또는 SNS(문자나 카카오톡 등)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접 보면서 대화하거나 전화통화 및 이메일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여러 정보통신 도구를 이용하여 그룹의 구성원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간호학과 학생들은 최근 수행한 그룹과제 시 수행한 협동적 정보검색에 대해 대체적으로 '보통' 이상으로 협동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룹과제 시 수행한 협동적 정보검색에 대해 '만족'하는 이유는 협력하여 과제를 할 수 있고, 협동심을 기를 수 있으며, 자료를 다양한 시선으로 해석, 완성도 높은 결과 획득 가능 및 모르는 정보를 서로 공유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불만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응답자가 구성원의 참여도가 낮아 역할 분담에 불만족하며, 서로 역할 떠넘기는 문제가 있고, 팀원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 안되고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협동적 정보검색을 통하여 여러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한 의사소통의 시간과 노력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협동적 정보검색에서 인식하는 어려움이 그룹원들 간의 스케줄 맞추기와 그룹원들 간의 의사소통이라고 응답한 부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간호학과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정보검색을 할 때 주로 과제 또는 정보검색에서 세부 주제를 선정하고 역할을 분담하기 위한 단계에서 주로 협동을 하게 되며, 또한 과제 또는

정보검색에서 특정 주제를 구체화 하는 단계에서는 가장 적게 협동한다고 응답하여, 특정 주제를 정하여 구체화 하는 단계에서는 그룹원들과의 협동보다는 개인 위주로 정보검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간호학과 학생들이 정보검색 과정에서 다른 학생과 협동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가장 큰 이유에 서로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여 주로 역할을 분담하여 쉽고 빠르게 정보를 찾기 위해 주로 협동하여 정보를 검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학생들은 찾은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찾지 못한 어려운 정보를 함께 찾기 위해 협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학과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협동 및 정서적 경험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자가 여자보다 협동에 대해 더욱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흥미로운' 또는 '신나는' 등의 긍정적 정서에 대해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간호학과 학생들의 지난 그룹과제 시 정보검색에서 그룹원들과의 협동에서 협동이 얼마나 잘되고 못되었는가에 대한 수준, 협동하여 만든 마지막 결과물, 전체적인 협동적 정보검색의 수준, 협력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한 후 찾은 결과정보에 대한 만족도, 협동하여 필요한 또는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것의 어려움, 협동하여 필요한 또는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것이 과제의 정확도 및 신속성 등에 대한 항목에 대해 평균적으로 '보통' 이상으로 만족 또는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학생들의 나타난 '협동하여 원하는 정보 찾는 어려움'에 대한 만족도는 모든 협동 요소와의 상관관계에서 부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협동하여 그룹과제 시 정보검색을 할 때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학생일수록, 협동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협동의 수준, 협동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 전체적 검색수준, 찾은 정보에 대한 만족도, 협동적 정보검색의 신속성 등에 대해 낮게 만족 또는 인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섯째, PANAS 척도의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분석결과, 전체 항목의 평균은 10점 만점에 긍정적 정서에 대한 전체 항목의 평균은 5.0(SD = 1.1), 부정적 정서에 대한 전체 항목의 평균은 4.3(SD = 1.3)으로 나타나 긍정적 경험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 경험에 대한 인식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여러 협동의 경험과 관련된 만족도 및 인식요소들과 긍정적 정서 및 부정적 정서와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특히 긍정적 정서를 갖는 학생들이 여러 협동 요소 및 협동적 정보검색의 결과물에 대한 정확도, 신속성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였으며, 반면 긍정적 정서를 갖는 학생일수록 협동하여 원하는 정보를 찾는데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부정적 정서를 갖는 학생일수록 '협동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호학과 학생들은 그룹과제 시 협동적 정보검색에 대해 여러 요소 및 경험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느끼고 있으며, 불만족하는 원인으로 는 그룹 내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 및 시간과 노력의 투자에 어려움 또는 불편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룹과제 시 협동적 정보검색 과정에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경험을 모두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인 경

험을 갖는 학생일수록 그룹과제의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그룹과제 시 협동적 정보검색에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경험은 학생들의 정보행태와 정보원 또는 의사소통에도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간호학과 학생들은 학과의 특성상 다양하고 전문적인 정보의 필요성과 이를 공유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그룹 또는 협동 정보검색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때 학생들은 조직 내의 개인의 역할 또는 따라 정보검색 단계, 정보의 요구 등 서로 다른 목적과 단계에 따라 협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5.2 제언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하여 그룹과제 시 협동적 정보검색이 업무에서 자주 요구되는 간호학과 학생들이 협동적 정보검색에 참여할 때, 그룹원들은 다양한 정보요구와 협동에 대해 다양한 인식을 갖고 있었고, 또한 그들의 정서적 경험이 협동의 여러 요소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협동을 하는 그룹원들이 어떻게 협동을 경험하고, 어떤 정보이용행태를 보이며, 어떤 감정을 경험하지를 인지하는 것은 조직 내에서 협동적 정보검색을 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검색 결과 및 정확성, 신속성 등을 높일 수 있으며, 협동의 과정에서 각 정보검색의 단계 및 정보요구에 따라 어떠한 정서적 상황을 나타낼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협동과정에서 나타나는 만족 또는 불만족 및 정서적 상황에 대해 인지함으로써, 현재 개인의 정보검색

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여러 정보 시스템 및 의사소통 도구가 협동적 정보검색을 위한 시스템의 개발 및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이용된 PANAS 척도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Watson et al.(1998)에 의해 개발된 사회심리, 성격심리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정서 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보고 측정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2003)의 연구를 바탕으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학생들의 정서적 경험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본래의 단어가 나타내는 의미를 한국어로 완벽하게 구현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으며, 또한 이러한 부분이 설문 참여자가 각 단어에 담긴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본인의 정서를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를 20개 단어에 한정되어 귀속시킨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참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본인의 정서를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측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이용자에 정서를 세분화 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음을 본 연구는 시사해 주고 있다.

셋째, 그룹과제 시 협동적 정보검색에 대한 경험 및 만족도, 인식은 개인의 성향, 기존의 그룹과제에 대한 경험, 그룹과제의 주제 등 다양한 매개변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구의 참여자의 성향 및 다양한 협동 환경, 경험 등의 관련성을 밝힐 수 있는 연구가 다양한 방법론의 적용을 통해 수행함으로써 이러한 영

향 요인들을 추가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정서적 경험과 협동적 정보검색의 결과의 정확성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같이,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두 요소의 상관관계를 밝힐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학생들의 그룹과제 시 협동적 정보검색 경험에 대한 분석, 만족도 및 인식, 정서적 경험 및 여러 협동 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도서관 사서 및 학습 지도자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적용하여 학생들의 정서적 경험, 협동의 경험 및 인식에 따라 실제적으로 그룹과제 시 협동적 정보검색을 하는 정보 이용자들에게 협동적 정보이용을 위한 정보활용교육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yldegard(2006)는 협동적 정보검색은 이용자의 정보검색 과정에 사회적 맥락 및 인지적 맥락이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협동적 정보이용을 위한 정보활용교육에서는 이에 관련된 요소를 강조하여 이용자들에게 교육할 수 있다. 예를 들면, Reddy and Jansen(2008)이 언급한 협동적 정보행태가 주로 발생하는 요인으로는 분산된 정보, 즉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부족, 정보요구의 복잡함 등의 요소와, 협동적 정보검색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인 '그룹원들 간의 업무 또는 역할 분담'을 협동적 정보이용을 위한 이용자에게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Foley and Smeaton(2010)은 '그룹원들 간의 업무 또는 역할 분담'은 그룹원들의 정보 습득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과제의 중복성과 어려움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보

았다. 따라서 협동적 정보검색에서 효과적으로 과제를 분담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업무 분담과 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중재, 이용자 인터페이스 중재, 역할을 기반으로 한 중재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을 위한 조정 및 중재를 교육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Shah, Pickens and Golovchinsky 2010).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대상과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정보활용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문헌정보학 분야의 교과과정에서도 미래의 사서를 위한 협동 및 그룹을 대상으로 한 정보이용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다섯째, 본 연구의 내용 및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그룹과제 시 협동적 정보행태가 많이 요구되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습자들에게 적용하여, 다양한 분야에 학습자들의 이용행태를 분석함으로써, 그 결과의 일반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 된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400명 이상으로 적지 않은 표본 크기였지만, 연구의 대상이 특정 대학의 학생들만 참여한 연구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

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확대뿐만 아니라 간호학 이외의 다른 연관 분야의 연구 대상으로 확대하여 다양성을 꾀한 후속 연구들이 수행되어 연구결과들이 종합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후속 연구에서 다양한 검증을 요구한다는 의미에서 의의가 있으며, 특히 협동적 정보검색에 따른 정보의 정확성, 적합성 등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 학생들이 그룹과제 시 협동을 위해 이용하는 정보도구는 개인의 스마트폰, 면대면 만남, 이메일 등으로 나타나 협동적 정보검색 및 이용을 위한 전문적인 정보 시스템의 개발 및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정영숙, 박옥남(2009)은 그룹 기반 학습에서 온라인 정보 시스템은 학습자들의 상호작용과 그룹 기반 학습의 진행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또한 기존의 개발된 다양한 협동적 정보검색을 위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활용교육도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1] 이지수. 2013. 그룹 연구 과제에서의 협동적 정보행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3): 97-117.
- [2]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 2003. 한국관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935-946.
- [3] 정영숙, 박옥남. 2009. 위키 환경을 활용한 학습자의 협력학습 기반 그룹 프로젝트 활동 분석: 구글 사이트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26(3): 239-259.
- [4] Ashby, F. G, Isen, A. M. and Turken, A. U. 1999. "A Neuropsychological Theory of Positive Affect and its Influence on Cognition." *Psychological Rev*, 106(3): 529-550.

- [5] Bruce, H., Fidel, R., Pejtersen, A. M., Dumais, S. and Grudin, J. 2003. "A Comparison of the Collaborative Information Retrieval of Two Design Teams." *New Review of Information Behavior Research*, 4: 139-153.
- [6] Davies, C. 2000. "Getting Health Professionals to Work Together." *British Medical Journal*, 320: 1021-1022.
- [7] Foley, C. and Smeaton, A. 2010. "Division of Labour and Sharing of Knowledge for Synchronous Collaborative Information Retriev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Management*, 46(6): 762-772.
- [8] Golovchinsky, G., Morris, M. R. and Pickens, J. 2010.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Information Processing and Management*, 46(6): 629-631.
- [9] González-Ibáñez, R. 2012. Melting the Affective Poles: A Study of the Interaction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s and their Role in Collaborative Information Seeking. *Presented at JCDL Doctoral Consortium and archived in Bulletin of IEEE Technical Committee on Digital Libraries*, 8(2), ISSN 1937-7266.
- [10] González-Ibáñez, R., Shah, C. and Córdova, N. R. 2011. Smile! Studying Expressivity of Happiness as a Synergic Factor in Collaborative Information Seeking. In *Proceedings of American Society of Information Science & Technology (ASIST'2011) Annual Meeting*, New Orleans, Louisiana.
- [11] Gorman, P. N., Ash, J., Lavelle, M., Lyman, J., Delcambre, L., Maier, D., Weaver, M. and Bowers, S. 2000. "Bundles in the Wild: Managing Information to Solve Problems and Maintain Situation Awareness." *Library Trends*, 49(2): 266-289.
- [12] Hyldegård, J. 2006. "Collaborative Information Behaviour - Exploring Kuhlthau's Information Search Process Model in a Group-based Educational Setting." *Information Processing and Management*, 42(1): 276-298.
- [13] Hyldegård, J. 2009. "Beyond the Search Process: Exploring Group Members' Information Behavior in Context." *Information Processing and Management*, 45(1): 142-158.
- [14] Lindeke, L. L. and Siekert, A. M. 2005. "Nurse-physician Workplace Collaboration." *Online Journal of Issues in Nursing*, 10(1): 1-15.
- [15] Karunakaran, A. and Reddy, M. 2012. The Role of Narratives in Collaborative Information Seeking. *Paper presented at the ACM Conference in Supporting Group Work (GROUP' 12)*.
- [16] Kim, J. and Lee, J. 2012. Graduate Students' Information Seeking in a Collaborative Learning Setting. In *Proceeding of the iConference*, 552-554.
- [17] Kim, J. and Lee, J. 2014. "Knowledge Construction and Information Seeking in Collaborative Learning." *Canadian Journal of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38(1): 1-21.

- [18] Fredrickson, B. L. and Losada, M. F. 2005. "The Positive Affect and the Complex Dynamics of Human Flourishing." *American Psychologist*, 60(7): 678-686.
- [19] Poltrock, S., Dumais, S., Fidel, R., Bruce, H. and Pejtersen, A. M. 2003. Information Seeking and Sharing in Design Teams. In *Proceedings of the ACM Conference on supporting group work*, Sanibel Island, Florida, 239-247.
- [20] Reagans, R., Zuckerman, E. and McEvily, B. 2004. "How to Make the Team: Social Networks vs. Demography as Criteria for Designing Effective Team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9: 101-133.
- [21] Reddy, M. and Dourish, P. 2002. A Finger on the Pulse: Temporal Rhythms and Information Seeking in Medical Work. In *Proceedings of the ACM Conference on Computer-Supported Cooperative Work CSCW 2002*, Chicago, IL.
- [22] Reddy, M. C. and Jansen, B. J. 2008. "A Model for Understanding Collaborative Information Behavior in Context: A Study of Two Healthcare Teams." *Information Processing and Management*, 44(1): 256-273.
- [23] Reddy, M., Pratt, W., Dourish, P. and Shabot, M. 2002. Asking Questions: Information Needs in a Surgical Intensive Care Unit. In *Proceedings of American Medical Informatics Association Fall Symposium (AMIA'02)*. San Antonio, TX, 651-655.
- [24] Reddy, M. and Spence, P. R. 2008. "Collaborative Information Seeking: A Field Study of a Multidisciplinary Patient Care Team." *Information Processing and Management*, 44(1): 242-255.
- [25] Shah, C. 2010. Working in Collaboration-What, Why, and How? In *Proceedings of Collaborative Information Retrieval workshop at CSCW*, Savannah, GA.
- [26] Shah, C. and González- Ibáñez, R. 2010. Exploring Information Seeking Processes in Collaborative Search Tasks. In *Proceedings of American Society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SIST) 2010*, Pittsburgh, PA. October 22-27, 2010.
- [27] Shah, Chirag C., Pickens, J. and Golovchinsky, G. 2010. "Role-Based Results Redistribution for Collaborative Information Retriev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Management*, 46(6): 773-781.
- [28] Stvilia, B., Twidale, M. B., Smith, L. C. and Gasser, L. 2008. "Information Quality Work Organization in Wikipedia."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9(6): 983-1001.
- [29] Watson, D., Clark, L. A. and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63-107.

- [30] Waugh, C. E. and Fredrickson, B. L. 2006. "Nice to Know You: Positive Emotions, Self-other Overlap, and Complex Understanding in the Formation of a New Relationship."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2): 93-106.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Lee, J. 2013. "Exploring Collaborative Information Behavior in the Group-Based Research Project: Content Analysis of Online Discussion Foru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3): 97-117.
- [2] Lee, H. H., Kim, E. J. and Lee, M. G. 2003. "A Validation Study of Korea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The PANAS Scale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2(4): 935-946.
- [3] Jung, Y. S. and Park, O. N. 2009. "Analyzing Learners' Activities in the Collaborative Learning Based Group Project Using the Wiki Environment: a Case of the Google Sites Us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6(3): 239-259.

